

남북협력동향

(2005.1.1 ~ 3.31)

■ 북한, '신년 공동사설' 발표(1.1)

- 북한은 「全黨, 全軍, 全民이 일심단결하여 先軍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」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 등 3개 신문의 '신년 공동사설'을 발표(조선중앙방송)
- 경제부문에 대해 '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'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며 주민생활 향상 및 개혁지속 의지를 표명
- 특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부문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,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것을 강조

■ 북한, 비료 50만 톤 지원 요청(1.13)

-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대한적십자사에 비료 50만 톤(1,400억원 상당) 지원 요청
- 정부는 2000년부터 봄, 가을에 걸쳐 매년 30만 톤을 지원하였으며, 금년에는 과거에 비해 지원 요청량이 대폭 증가
- 비료 50만 톤은 북한 연간 필요량의 40%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제사회의 비료지원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 정부에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
- ※ 비료 지원 실적 : 2000년 30만 톤, 2001년 20만 톤, 2002년 30만 톤, 2003년 30만톤, 2004년 30만 톤

■ 북한, 대중용 법전 발간

- 북한은 작년 8월 '대중용'으로 명기한 법전을 발간해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1월 31일 남한서도 시판(1.16, 1.30 연합)

- 그동안 북한은 법률 제정후 공포절차를 생략해 제·개정 여부의 확인이 곤란했고 북한 내부에서도 법전은 제한된 장소에 비치돼 당 간부나 법률 전문가만 열람 가능
- 법전에 실린 112개 법률 중 절반 이상이 경제 관련 법이며 대부분이 1999년을 전후로 제·개정되어 꾸준히 보완
-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, 경제개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
 - ※ 예를 들면 사회주의상업법(시장 확대 및 영업허가제 명시),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, 소프트웨어산업법, 상속법(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 규정), 손해보상법 등

■ 2004년 남북교역, 69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.8% 감소

- 2004년중 남북교역액은 697백만 달러로 반입액은 전년 대비 10.8% 감소한 258백만 달러, 반출액은 전년 대비 0.9% 증가한 439백만 달러(통일부)
- 주요 반입 품목 : 농림수산물, 섬유류, 철강·금속제품(아연괴)
- 주요 반출 품목 : 화학공업제품(비료), 섬유류, 농림수산물, 기계류
- 거래성 교역(상업적 매매거래, 위탁가공교역)은 348백만 달러(반입 150백만 달러, 반출 22백만 달러)로 전년 대비 23.2% 감소
-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쿼터 설정 등으로 북어류 등의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위탁가공교역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섬유류 교역이 기업 부도, 내수부진에 따른 주문량 축소 등으로 위축

연도별 남북교역 동향

(단위 : 백만 달러)

	2000	2001	2002	2003	2004
계	425	403	642	724	697
반입	152	176	272	289	258
반출	273	227	370	435	43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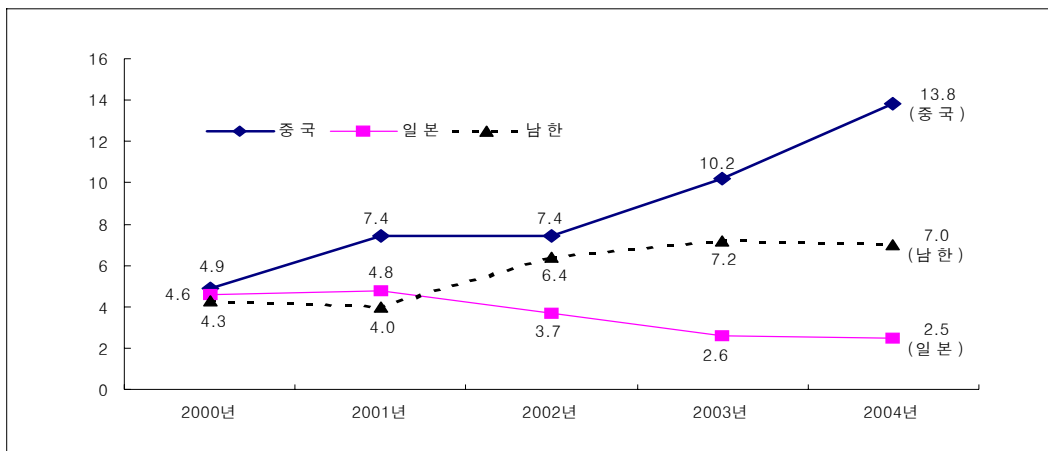
■ 2004년 북-중 교역 35.4% 증가, 북-일 교역은 하락세

- 2004년 북-중 교역액은 1,385백만 달러로 2003년 대비 35.4% 증가하여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화(통일부)

- 수출은 2003년 대비 48.1% 증가한 586백만 달러를, 수입은 27.4% 증가한 800백만 달러를 기록
- 2004년 북-일 교역액은 25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3년 연속 하락세 지속
- 수출은 6.3% 감소한 163백만 달러, 수입은 2.2% 감소한 89백만 달러

최근 5년간 북한의 대중·일 교역추이

(단위 : 억 달러)



■ 2004년 국내 대북지원, 256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% 증가

- 2004년 국내 대북지원은 256백만 달러(2,984억원)로 2003년 대비 62% 증가(통일부)
- 정부 지원은 115백만 달러(1,323억원)로 2003년 대비 32% 증가하였고, 민간 지원은 141백만 달러(1,661억원)로 2003년 대비 100% 증가
- 대북지원 급증은 용천재해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긴급구호품 및 복구용 자재·장비 지원에 기인
- 한편, 2004년 국제사회 대북지원은 2003년 대비 17% 증가한 163백만 달러로 지원내역을 보면 UN기구 지원 126백만 달러, 개별국가 지원 21백만 달러, 국제 NGO 지원 16백만 달러

연도별 · 주체별 대북지원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구 분		1999 이전	2000	2001	2002	2003	2004	누 계
한 국	정 부	301	79	70	84	87	115	736
	민 간	62	35	65	51	71	141	425
	계	363	114	135	135	158	256	1,161
국제사회		1,079	182	357	258	139	163	2,178
합 계		1,441	296	493	393	297	419	3,339
한국지원분(%)		25.2	38.5	27.5	34.4	53.1	61.1	34.8

■ 2004년 남북간 해상 물동량 5.7% 증가

- 2004년 남북간 해상 물동량은 1,108천 톤으로 2003년 대비 5.7% 증가(통일부)
 - 남한 → 북한 물동량은 625천 톤으로 대북 식량차관 일부물량의 육로수송(10만 톤)과 남북교역 감소 등에 따라 2003년 대비 25.7% 감소
 - 북한 → 남한 물동량은 북한산 모래 반입 개시에 따라 2003년 대비 133.1% 증가한 483천 톤을 기록
- 한편, 2004년 남북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 2,124회로 전년 대비 5.0% 증가

2004년 남북간 선박운항 횟수 및 물동량 현황

구 분	선박 운항횟수(회)			물동량(천 톤)		
	남한 → 북한	북한 → 남한	총횟수	남한 → 북한	북한 → 남한	총물동량
2003년	877	1,145	2,022	841	207	1,048
2004년	946	1,178	2,124	625	483	1,108
증가율(%)	7.8	2.9	5.0	-25.7	133.1	5.7

■ 정부, 개성공단 시범단지 기업 추가 승인(1.26)

-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 중 마지막 2개 기업인 제씨콤, 재영솔루텍에 대한 협력사업을 승인(통일부)
 - 제씨콤(광통신 부품 제조) : 투자금액 43억, 분양면적 1,778평
 - 재영솔루텍(자동차 부품 제조) : 투자금액 50억, 분양면적 2,438평

■ 정부, 북한 농산물 위장반입 방지 조치 발표(1.27)

- 통일부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북한산 위장반입 방지를 위해 한도물량 설정 외 직계약, 직수송, 관계부처 및 북한 민경련과의 협조 등을 시행
 - 들깨, 북어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연간 한도와 업체별 한도를 배정
- 또한, 전년까지 한도물량 설정이 없던 녹두, 팥, 대두, 참깨 등 주요 국영무역품목의 경우도 한도물량을 설정하여 관리

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2000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
농수산물 반입	862	1,080	1,198	1,534	1,069

■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(1.31)

- 정부의 민간차원 남북경협 활성화와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확대 시책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(통일부·한국수출입은행)
- 주요 개선 내용
 - 개성공단 소재 자산의 담보인정 및 후취담보제도 도입
 - SOC 민자사업 지원제도 신설
 - 대북거래 현실에 맞춰 경험자금 대출상품 및 조건 다양화
 - 기금이 수은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협조 대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
- ※ 자세한 내용은 87쪽 “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” 참조

■ 북한, 핵무기 제조·보유 공식선언(2.10)

-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참가 중단을 공식 선언(조선중앙방송)
 - 우리 정부는 ‘북한 핵을 허용할 수 없다’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
 - 미국도 핵보유 선언을 ‘과거에도 들어왔던 말’이라고 의미를 낮추면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6자회담 지속 의사를 표명

■ 정부,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업 승인(2.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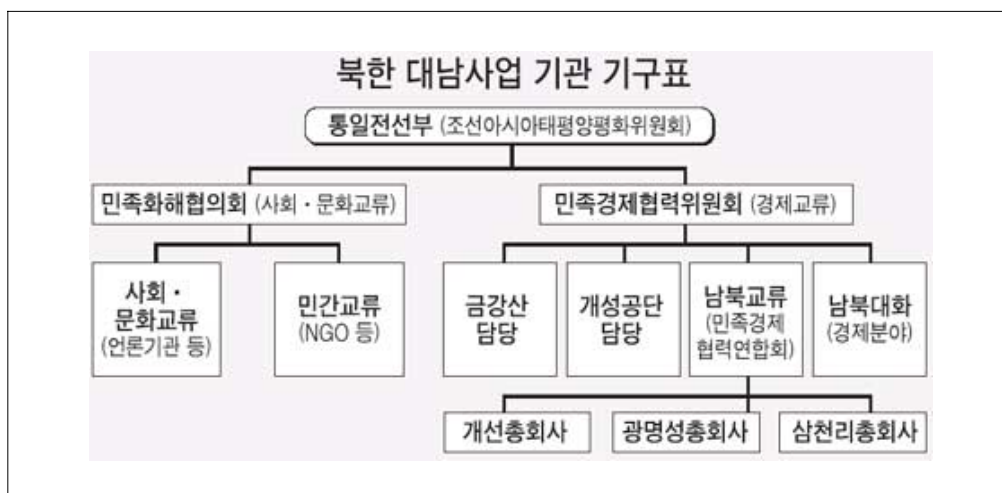
- 통일부는 한국전력공사(한전)의 개성공업지구 전기시설 설치·공급사업을 승인
 - 총사업비 : 51,453백만원(설비비, 사옥 및 숙소 건축비·운영비 등 포함)
 - ※ 한전은 '04. 5 정부로부터 개성공단 1단계 전기사업자로 지정되어 '04. 12 북측 중앙 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를 체결

■ 중국, 작년 대북 투자 130배 이상 급증

-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3년 1.3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, 2004년 들어 173.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보다 130배 이상 급증(KOTRA)
-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은 ①중국이 북한의 정치·군사적 우방이자 최대 교역상대국이라는 북·중 관계의 특수성, ②중국의 북한 시장 선점 및 대북 영향력 증대 시도, ③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중국 투자 유치 노력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

■ 북한, 대남사업 창구 개편

- 북한은 작년 별도로 운영되던 대남사업 창구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산하의 '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(아태)'가 관장토록 개편(중앙일보)



- 그동안 남한과의 경제교류는 내각 산하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(민경협)이, 사회·문화 교류는 노동당 소속의 민족화해협의회(민화협)이 주도해 왔으나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남사업 창구를 단일화
- 민경협은 남북경협 담당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(민경련)와 민경련 산하의 개선총회사(농수산물), 광명성총회사(가공품), 삼천리총회사(소프트웨어 교류) 등을 관할

■ 일본, 북한선박 입항규제를 위한 ‘선박유탁(油濁)손해배상보장법’ 시행(3.1)

- 일본은 자국내 입항선박의 선주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3월 1일부터 시행(연합)
- 일본은 동법이 대북 제재용이 아니라 기름유출 등 해상오염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, 실질적으로는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
- 2003년 일본 입항 북한선박중 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2.5%에 불과

■ 북한, 최고인민회의 개최 돌연 연기(3.4)

- 북한은 3월 9일 소집한다고 공고(2.7)했던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를 연기하고, 회의 날짜는 별도로 결정해 공시한다고 발표(조선중앙통신)
- 북한은 연기 사유에 대해 ‘대의원들의 제의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, 회의가 연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

■ 관세청,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 및 차량 통관고시 시행(3.10)

- 관세청은 ‘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관리에 관한 고시’를 3월 10일부터 시행
 - 개성공단에서 제조·가공한 물품의 통관과 차량 통행 및 원산지 표시 등의 특례를 규정
 - 세관통관은 도라산 세관(신설예정)에서 하고,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도 검사를 시행
 -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하여는 반출입시마다의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월단위로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
- 원산지 표시방식의 경우 반출입 물품의 국내 투자지분과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각각 60% 이상이면 Made in Korea(Gaeseong) 또는 한국산(개성)으로 표시하고, 60% 이내는 Made in DPRK(Gaeseong)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

- 원산지 표시는 국내소비를 전제한 것이며, 영문 또는 국문 표시 여부는 반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

■ 북한, 미수금 청구를 남측 단체에 위임

-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(민경련) 베이징 대표부는 단둥으로 철수하기 전인 3월 12일 남한의 '남북투자기업협의회'와 접촉을 갖고 미수금 청구를 위임(연합)
- 현재까지 북한에서 농수산물을 반입한 남측 4개 회사가 2001년 이후 215천 달러를 미지급

■ 통일부, 대북지원 사업자 규정 완화(3.13)

- 통일부는 대북지원 사업자 등록 요건인 '1년 이상 북측과의 사업 실적'을 없앴으로써 대북지원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(연합)
-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년 미만의 대북지원단체도 통일부에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가능

■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전력공급(3.16)

- 한국전력은 16일 오후 2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파주 문산변전소에서 22.9kV 배전선로 방식으로 1.5만kW 전력공급 개시(연합)
- 그동안 입주기업들은 자가 발전기로 공장을 가동해 왔으나, 앞으로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생산활동 가능

■ 북한, 도서 및 가요의 저작권을 남측 단체에 위임

-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남측의 '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'(이사장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)과 3월 18~20일 금강산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북한 저작권 이용절차에 합의(연합)
- 북측은 '림격정', '황진이', '고려사' 등 서적 3종과 '반갑습니다', '휘파람' 등 가요 2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
- 또한 북측은 문학도서 276편의 재출판권 양도 의사를 남측에 전달
- ※ 북한은 2003년 4월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

■ 북한, 내각 총리 중국 방문 및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(3.22)

-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는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의 초청으로 중국을 친선 방문하여 ‘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’과 ‘환경협조에 관한 협정’을 조인(조선중앙통신)
- 협정들의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환경문제의 공조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
- 박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을 대신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, 후 주석은 적당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답변(연합)

■ 남북경협 주사업자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(3.22)

- 6월부터 시행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승인을 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자 가운데 경협관련 매출액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50%를 넘는 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(연합)

■ 남북간 교역 및 통행 절차 개선(3.23)

- 통일부는 경의선·동해선 도로 연결로 육로를 통한 남북간 차량운행 및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역 및 통행 절차 개선

개선 내용

항 목	현 행	개 선
•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	- 협력사업 물품 반·출입시 신고	- 신고없이 반·출입 가능
•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	- CIQ 검사 → 남북관리구역 통문에 서 군검색 실시	- CIQ 검사만 실시(남북관리구역 통문 군검색 폐지)
• 경의선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	- 사전통보된 차량 및 인원파 일치 여부 확인	- 방북차량 전용차선제 운영(차량 깃발, 일련번호 등 외관상 표식 으로 확인)
• 개성공단 반입물품 통관검사	- 전체 반입신고건의 물품검사	- 선별검사
• 수송장비 운행승인절차	- 운행승인신청 처리기간 : 30일 - 운행승인 유효기간 : 1~2개월	- 운행승인신청 처리기간 : 수송장 비별 5~10일 - 운행승인 유효기간 : 부정기 1년, 정기 2년
• 통일부와 관세청간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	- 통일부 자동차운행승인 → 세관 방 문 → 등록 신청 및 통행차량증명 서 발급 → 차량 운행	- 통일부 인터넷으로 통행차량증명 서 발급 → 차량 운행

■ 남-북, 개성공단 통신 부속합의서 체결(3.24)

- KT는 북측 조선채신회사와 개성공단 통신 부속합의서 체결
 - 번호체계 : 남측→공단(001-8585-YYYY), 공단→남측(089-국내번호)
 - 요금체계 : 기본료 월 10달러, 개성공단내 통화 3분당 3센트, 남북간 분당 40센트(전화 설치비는 회선당 100달러)
 - 남북 수익배분 : '매출액 배분 방식'
- 남북간의 전화가 단절된 지 60년만에 처음으로 광통신망을 직접 연결하여 5월 말경 전화와 팩스 개통 예정

■ 북한, 조류독감 발생 확인(3.27)

- 북한은 3월 27일 평양시 하당 닭공장 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확인(조선중앙통신)
- 북한의 조류독감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 북한의 피해상황과 방역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입수에 노력

■ 개성공단 기업, 입주기업 대표자 회의 개최(3.28)

- 개성공단 시범단지입주 15개 기업은 28일 개성에서 입주기업 대표자 회의를 갖고 정부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, 개발사업자에게 건의사항을 전달(연합)
- 건의사항 : 출입절차 간소화, 투자보장 확대, 근로자 출퇴근 지원, 기반시설 공급의 조기 완료, 외국인 바이어의 개성방문 협조 등

■ 남한 중소기업, 평양에 공단설립 추진

- 남북투자기업협의회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베이징 대표부와 평양에 중소기업 공단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(3.29, 연합)
- 1단계는 평양에 15만~20만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북측이 부지, 인력, 원·부자재를 남측이 자본, 기술, 건축자재,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합영·합작 형태가 될 전망
- ※ 남북투자기업협의회는 효원물산, G-한신 등 12개 중소기업이 회원으로 참가